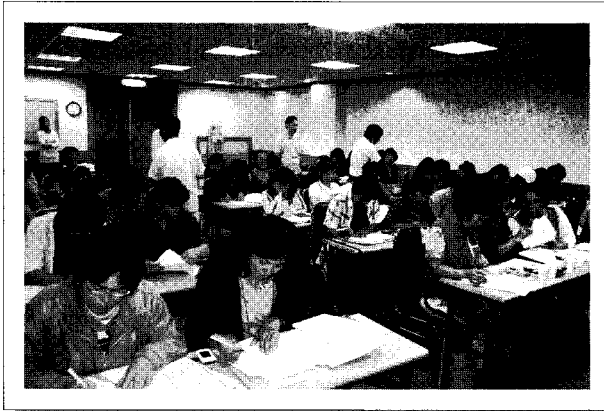


## 목장 주인으로서 나를 느끼게 해주었던 교육

배은영 \_ 경남 고성 정동목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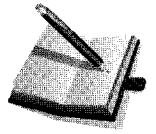
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조금은 쌀쌀하게까지 느껴집니다.

환절기에 낙농가족 여러분 건강유의 하세요. 결혼생활과 함께 시작한 낙농 생활이 아이들 키우고 소들 돌보는 일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지내 왔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번 여성 낙농인 전문교육에 참석하고 보니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았고 더구나 교육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아 이제는 다른 눈으로 우리목장을 보게 되면서 벅차오르는 희망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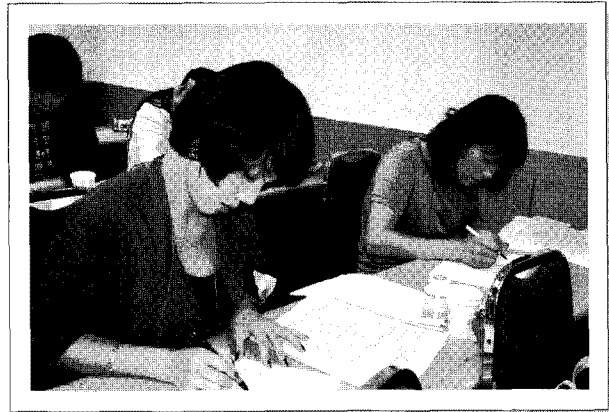
사실 전문화 교육에 참석하기 전 사전 설문지를 꺼내들고는 남편과 함께 우리목장의 경영에 대해서 이틀밤을 꼬박 배워야 했고 교육일정을 보면서 잘 해 낼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제 자신을 무겁게

했습니다. 결혼 8년 동안 아직까지 경영 장부나 경영에 관한한 남편이 주로 해 왔었기 때문에 내 분야가 아닌 듯 마냥 시계바늘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던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이번교육을 마치면서 목장의 주인은 혼자가 아닌 우리 부부라는 것을 느꼈으며 나도 남편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.

교육 기간동안 지역 아카데미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우리 교육생들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셨던 강사님들을 비롯하여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많은 분들도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새로운 착유시설을 도입하고부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 여



기저기 많은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히나 이번 교육은 너무나 생소하고, 시험이라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했던것 같습니다. 한번의 교육으로 강사님들의 모든 내용을 다 배우지는 못한것 같아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한번 더 배우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교육에도 참석하고 싶습니다.



가계부를 약식으로만 매일 쓰다보니 교육내용 중 대차대조표가 제일 힘들었는데 집에와서 남편에게 다시 물었더니 남편교육은 더 어려운것 같습니다.



좋은 강사님들의 좋은 교육 외에도 착유라는 열악한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참석 하셨던 우리 2기 교육생 언니들, 교육 기간동안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. 아직은 좀 어려서 좀더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교육을 마친

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그래도 이쁘게 봐주신 우리 교육생 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.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더 뵙고 싶어요. 이모같은 언니들, 한분 한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이야기와 모습들에서 저는 또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많은 언니들께 배우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언니들의 나이나 위치에 갔을 때는 후배님들께 더 좋은 선배 낙농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몇 번을 다짐 했습니다.

개구쟁이 재훈이와 재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을것 같은 남편이 너무 고맙습니다. 아직은 많이 모자라고 미흡한 저이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 열심히 배워서 선배언니들 보다 더 좋은 여성 낙농인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청량한 시원함이 여름내 미루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. 오늘 아침 구석진 곳 거미줄 청소부터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은 벌써 희망에 찬 미래낙농의 주인공이 되어 갑니다. ☺